

특집 가족이 희망입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손녀 사랑은 할아버지

▶ 신 : “나는 김세진 감독, 신진식 감독, 선수 때부터 악착같이 안 하면 못 받아들였어요. 기본에 불성실한 것은 질책을 많이 해요. 철우 처음 왔을 때, ‘선수가 수비를 저리 하지?’ 옛 삼성화재 멤버들은 정말 기본기 좋았거든. 김세진, 김상우, 신진식, 최태웅 다 넘치는 사람들이예요.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감독의 일이었죠. 원칙에 맞게. 많이 이긴다고 욕먹는 걸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칙에서 틀리느냐, 안 틀리느냐, 그게 중요했어요.”
 헤인 : “그때 못하긴 못했어요(웃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삼성화재의 고급배구를 보며 자랐는데...”
 철우 : “역시 딸이구나 싶었죠(웃음). 원래 예전 팀에서 공격만 했고, 제 위주로 플레이가 돌아갔죠. 그런데 이 팀에선 외국인



삼성화재 신치용 단장은 “여태껏 삼성트레이닝센터(STC)에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와의 가족인터뷰 덕분에 STC에도 정원이 있음을 알게 됐다. 용인 | 김종원 기자

신치용 단장
 내가 그리 악착 같이 독하게 굴어도 집에 와선 배구 얘기 한 마디 안 했지
아내 전미애 씨
 감독 와이프로선 스트레스가 없었죠 사위 배구 보면 왜 그렇게 떨리는지

신 : “안 되면 숙소에서 자야죠. 새벽에 불 밝혀놓고 있고, 혼자 앉아 있으면 전부 긴장되잖아요. 늘 끊임없이 선수들에게 긴장을 주려 했죠. 균형 있는 긴장이 유지되어야 발전이 돼요.”
 -딸 둘한테는 미안함이 있겠습니까.
 신 : “어릴 때 같이 시간을 못했으니까... 1989년 청소년 대표팀 코치로 시작해서 1994년까지 국가대표 코치, 1995년 삼성화재 감독 맡고 창단해서 팀 만든다고 했고, 국가대표 감독도 맡아서 겨울엔 팀, 여름엔 태릉 이렇게 20년이었어요. 아이들과 같이 할 시간이 없어서 미안해요.”
 -그래서 딸한테 꿈쩍 못한 겁니까?
 신 : “손녀(소울, 시하)한테 애정이 많아요. 딸한테 못 해줬으니까.”
 -가족들이 단장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사위 박철우
 처음 삼성화재 왔을 때 엄청 깨졌죠 숙소선 혼내고 집에서 또 잘해주고
딸 신혜인
 내가 봐도 그땐 당신이 못하긴 했지 남편 FA 협상은 내가 할 걸 그랬어

선수 보조 역할이니 처음에 적응 못했죠.”
 -박철우의 삼성화재 이적 첫해 꼴찌로 스타트를 했었죠. 당시 집안 분위기도 최악이었겠네요.
 전 : “남편이 밖에서는 살벌하게 했을지언정 집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어요. 꼴찌를 할 때에도 남편이 식사하면서 ‘우승할 수 있어’하는 거예요. 식구들도 ‘말이 돼?’하며 비웃었죠.”
 철우 : “저도 안 될 거 같았는데 됐어요(웃음).”
 신 : “자부하는 것은 내가 그리 악착 같이 독하게 해서 삼성화재 20년이 있었어요. 우승 한번 했다고 폼 잡았다면 바로 처박했지. 나태해지거든. 우승했는데 ‘왜 그리 연습 많이 시키느냐’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건 그들 생각이고...”
●배구장에서의 얼굴, 집에서의 얼굴
 -결혼까지 어디서 매력을 느꼈습니까?
 전 : “몰랐죠. 어려서. 태릉선수촌에서 만났어요. 되게 똑똑해 보였어요. 말도 많이 안 했는데, 느낌이. 그리고 글씨를 예쁘게 잘 썼어요(웃음).”
 신 : “탁월한 선택이었지.”
 -신 단장이 무뎠던 재미없을 듯합니다.
 전 : “집에선 그러지 않아요. 밖에서 보는 신치용과 집에 있는 신치용을 알면 상상이 안 갈 정도일 걸요. 음식도 너무 잘하고.”
 철우 : “제일 적응 안 된 게 죽도록 혼나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서 집에 오면 너무 달라져 있으세요. 저는 감정이 추슬러

지지 않아서 웃을 수도 없고... 그러다 숙소 가면 또 혼나고...”
 전 : “저희는 숙소의 표정을 모르는데 철우는 (남편) 표정 자체가 다르다고 해요.”
 신 : “숙소는 전쟁터잖아.”
 철우 : “연습 분위기가 숨 막혀요. 쓰러지는 선수도 나왔어요. 그 덕분에 챔피언 같은 큰 경기 가도 동요되지 않은 것 같아요.”
 -평생을 동고동락하다보면, 배구가 잘 될 때, 안 될 때 아무래도 다르지 않습니까?
 전 : “티 안 내요. 감독 와이프로서 스트레스 한번도 없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경기지면 살벌할 줄 아는데 저희 집은 안 그랬어요. 제 생각으론 정말 힘들 땐 집에 안 왔어요.”

요?
 전 : “남편한테 바라는 것 너무 많아요(웃음). 헤인이나 철우한테는 바라는 것 없어요.”
 신 : “더 이상 어떻게 해?”
 헤인 : “손녀한테 하는 절반만 나한테 해줬으면.”
 신 : “아예 기대를 하지 말아(웃음).”
 철우 : “술 좀 덜 드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해요.”
 -단장님이 가족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신 : “나한테 바라지 마라(이 말을 특 던지며 신 단장이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기자도 할아버지 미소가 어떤 것인지 봤다.)”

SD

박철우-신혜인 “딸이 커서 배구선수랑 사귀다고 하면 어찌죠?”

라이벌 팀 선수-감독 딸 신분 극복 “둘째 시하가 벌써부터 공을 좋아해”
 박철우와 신혜인의 만남은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지금도 화자된다. 소설과의 결정적 차이가 있다면 둘의 연애는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이다. 당시의 마음고생도 이제는 웃으면서 떠올

리는 추억이 됐다. 배구선수 박철우와 농구선수 신혜인은 재회를 같이 하다 인연이 시작됐다.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 신 단장은 단호하게 반대했다. 평소 “딸을 달라고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는 놈은 돌멩이로 머리를 쪼갬다”고 말할 정도로 딸 사랑이 각별했던 신 단장이었다. 전 여사도 ‘친구로 사귀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다. 다만

열애가 공개되자 딸보다 남의 아들인 박철우가 더 걱정됐다. 현역 배구선수이자 당시 삼성화재의 라이벌 팀 에이스 공격수인 박철우의 심리적 내상을 염려한 것이다. 그러나 막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사랑의 공식이다. 박철우는 예비 장모의 마음을 잡았다. 신 단장은 딸에게 “프로 선수는 현역 끝나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교육대학원에 가서 교사될 자격을 따라. 그러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전 여사도 “배구선수 와이프로 살면 혼자 아이 키우고, 대소사를 다 치려야 한다”고 했다. 신혜인은 “자신 있다”고 다짐했고, 교육대학원에 가서 학위도 땀다. 박철우-신혜인 커플 사이에서 어느덧 딸이 둘이다. 박철우는 “둘째 시하가 벌써 공을 좋아한다. 혹시 농구할까봐, 그래서 배구선수 만나면 어찌느냐는 말을 헤인이랑 나눈다”고 웃었다. 김영준 기자